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4-23호 / 10월 21일

FDI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문제점¹

1. 개요

- ☐ 최근 중국에서는 외자규모, 시장독점 폐해, 산업통제력 상실, 기술종속, 금융 위기 및 이에 따른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정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FDI 유입에 대해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음.
- ☐ 그러나 중국은 FDI 도입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자도입의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할 것임.

2. 외국인 투자의 최근 현황과 통제에 대한 견해

- ☐ 2004년 6월 말까지 중국은 누계기준으로 실제외자도입 규모는 약 5,353억 달러이며, 이미 일반제조업부터 인프라산업, 하이테크산업에까지 외자가 유입되고 있음.

- 전세계적인 경쟁구조를 감안한다면 중국은 외국의 對中 투자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할 것임.
- 외자규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경제가 선진국에 의해 통제되는가 아닌가를 파악해야 함.
- 다양한 국가로부터 외자가 유입되고 주요 업종에서의 독점 또는 독과점을 형성하지 않는 경우, 중국경제의 통제는 힘들며 오히려 중국이 선진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.
- 다국적기업의 對中투자에 대해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
- 다국적기업의 개별적인 對中투자규모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, 다국적기업이 반드시 투자를 통해 해당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며, 산업의 업·다운스트림 관계 및 물류정보 유입 등을 통해 해당 경제를 통제할 수 있음.
- 선진국의 해외투자에서 對中투자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상태임.
- 2002년 미국의 對中투자총액은 해외투자총액과 직접투자총액의 3.6%와 4.4%에 불과하며 일본과 유로지역의 해외직접투자액 중에서 對中투자는 각각 11%와 2.4%에 불과

3.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새로운 독점의 발생 가능성

□ WTO 가입 이후 중국은 대다수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을 이행하였고 개방 수준도 비교적 높은 수준임.

- 중국의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면, 외국의 거대규모의 서비스 업체들이 중국의 서비스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.

□ M&A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도 독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.

-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과거경험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의 M&A투자가 자연독점산업에 진입할 경우, 개방은 관리제도의 구조와 규범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며 이해충돌과 경험부족 등으로 독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.

4. 외자유입과 기술의존에 대한 우려

□ 외자를 활용함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는 ▲ 다국적기업이 관련 기술과 핵심기술을 통제하고 선진기술이전을 하지 않으며 ▲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R&D투자와 자체적인 하이테크 연구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과 중국의 자체적인 혁신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것임.

□ 중국의 기술확보는 다국적기업의 기술이전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는데, 이러한 기술이전은 다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주동적으로 선진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.

－ 시장경쟁의 심화로 다국적기업은 핵심기술을 이전할 유인이 높아짐.

□ 중국에서 하이테크에 관한 R&D 기관설립은 마이너스 효과보다 플러스 효과가 클 것이며 최소한 R&D 기관을 모국에서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유리할 것임.

5. 전략산업 발전에의 부정적 효과와 국내자본에 대한 ‘압력’과 관련된 우려

□ 새로운 외자유치 전략이 중국의 전략산업의 발전능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임.

－ 진정한 전략산업은 중국의 외국투자산업 가이드 목록에서 모두 외자진출 금지 혹은 진출이 엄격히 규제된 업종이기 때문임.

－ 일부 중국의 전략산업은 진입이 늦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, 먼저 진출했지만 발전하지 못했거나 혹은 발전 이후 경쟁력이 취약해진 것이 문제임.

－ 만약 산업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, 이들 산업의 발전이 외국자본에 의

해 저해되지는 않을 것임.

- 중국은 선진국의 對中투자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, 對中투자가 투자국에 오히려 많은 문제를 발생할 것임.
- 투자가 확대될수록 선진국의 對中의존도는 높아지고 산업이전의 증가에 따라 그들의 기술우위 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증가할 것임.

6.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가능성

□ 경제 전반에 대한 리스크 초래 가능성

- 외국자본의 대량 유입은 환율 인상, 국내 통화량과 신용대출 팽창 압력을 수반하고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취약한 은행체제는 유지하기 어려워짐.
- 전체적으로 볼 때, 국제자본의 유출입 규모 확대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문제를 유발하고 또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처 역시 거시경제에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음.

□ 금융 리스크 초래 가능성

- 중국은 금융부문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, 외부충격을 흡

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아직 충분하게 육성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.

7. 결론

□ 중국은 종전에 수립, 유지하여 왔던 FDI 정책을 견지해야 할 것임.

□ 국제관례에 의거한 해외투자도입 및 유관서비스 시스템을 완비하고, 국내외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국내기업에게는 외자도입을 활용하도록 방안을 지도해야 할 것임.

□ 무역정책과 외자정책간의 적절한 조화가 중요함.

－ 관세인하를 실현했거나 약속한 제품에 한해서는 외국자본의 진출, 생산을 권장해야 할 것임.

－ 외자의 독점추세가 나타나는 업종에 한해서는 국내기업의 경쟁을 권장하는 동시에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수입을 늘림으로써 외자의 독점행위를 억제해야 할 것임.

－ 외자의 진출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업종에 한해서는 수입도 규제해야 함.

□ 경쟁정책을 중시하고, 독·과점을 보호하는 정책은 철폐하여야 할 것임.

- 외자의 이용은 고용증대,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개선 등의 거시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게 실시하여야 할 것임.

- 외국자본이 국가경제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외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 불건전한 외자에 대해 중점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며, 외국자본의 출처 파악, 산업의 관리·감독 및 자본 유출입의 효과적 관리 등이 필요할 것임. (***)

¹ 본 보고서는 2004년 9월 13일에 KIEP가 북경에서 개최한 “한중일 FTA 및 중국경제 향후 발전 전망”에 관한 세미나에서 叶辅靖 国家发改委外经所国际金融室 主任의 발표문 《关于FDI对我国经济负面影响的想法》을 요약, 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.